



古代日本の
「西の都」
-東アジアとの交流拠点-

다자이후시 세계와 이어져 있는 국제 도시 '서쪽의 수도'의 중심

동아시아에 가까운 이전부터 국제 교류가 번영했던 지쿠시 땅에 당나라 수도 장안을 참고로 해서 지어진 다자이후는 규슈 정치의 중심지로서 또한 일본의 외교 거점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외국 사절을 맞이하기 위해 지위가 높은 분들이 관리직으로 부임하고 다채로운 교류가 펼쳐졌기에 다양한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